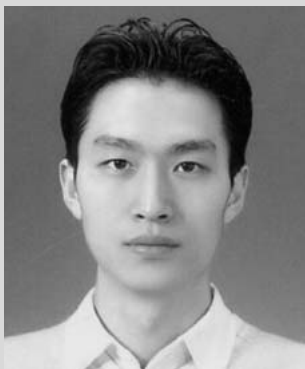


Premium Gift-Box 이용, 효율적 공정성 돋보여 핸드폰 슬림시리즈,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대상 수상



조 태 형

(주)팬택 디자인본부 해외디자인팀 연구원

국내 패키지디자인 업계 최고의 경연장인 제14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PACKSTAR)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지난 해 11월 25일 제14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는 일반부문 대상으로 전자부문에 출품한 (주)팬택의 '핸드폰, 슬림시리즈'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27개 제품이 팩스타 상으로 선정됐다.

일반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주)팬택 디자인본부 해외디자인팀 조태형 연구원을 만나, 제품 디자인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출품작을 접수할 당시 다른 업체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보고 수상 여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대상이란 결과를 얻게 되서 너무나 기쁩니다.”

조태형 연구원은 “팬택계열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찬용 부장님과 무엇보다도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도움을 주신 현용욱 대표님, 이홍국 실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태형 연구원은 현재 팬택계열 디자인본부 해외디자인팀에서 그래픽과 패키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을 비롯해 12회 가량의 본상 입상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지함 방식의 박스

(Box)와 슬립(Slip) 간지가 끼워지는 포장형태로써 기존 기프트박스(Gift-Box)와는 다른 프리미엄 기프트박스(Premium Gift-Box)로 차별화를 두고자 'Slim Series: PG-3500' 과 'Digital Camera Look Series: PG-6100/8000' 의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 핸드폰 시장에서는 국내와는 달리 매장에서 핸드폰이 박스에 넣은 상태로 진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을 고려, 조 연구원은 POP 기능을 살리고 제작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 공정성과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주력했다.

'Slim Series: PG-3500' 의 경우, 핸드폰이 슬림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제품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았으며, 블랙계열 컬러를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Premium) 소비자에게 명품의 느낌으로 주목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슬립(slip)간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제품의 컨셉을 보여줘 광고포스터의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했다.

'Digital Camera Look Series: PG-6100/8000' 은 슬립(Slip)간지에서 편집방식을 통하여 기능적인 특징을 보여주었고, 박스를 열었을 때 블랙의 바탕에 팬택의 로고와 함께 가로로 놓인 카메라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브랜드를 강조했다.

"폰의 컨셉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작업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조태형 연구원. 그러나 그는 이번 대한민국패키지대전 출품작의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양산품과 공모전 출품용을 다른 인쇄 사양으로 제작해야했기 때문에

슬한 야간밤샘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프리미엄 패키지(Premium Package)의 실제 양산을 목표로 하다 보니, 단가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실제 양산시의 공정 효율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렴하면서도 느낌이 좋은 재질을 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개당 단가 또한 기존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친환경적 소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조태형 연구원. 그는 기술적인 발전과 디자이너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태형 연구원은 POP 광고 기능을 가진 다양한 기프트 박스(Gift-Box)를 구상 중이다. 해외시장에서 소비심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팬택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그는 디자인을 통해 판매원을 도우는 한편 구매의 결단력에 기여할 수 있는 지기구조와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의 초기 컨셉 작업부터 기획안, 수출되는 지역정보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작업을 할 때 "디자이너 최종 artwork"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조태형 연구원.

새로운 기프트박스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에 앞장설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